

17일·24일 전주 한옥마을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

포쇄·어진 봉안행렬 재현

<책 말리기> <태조 초상화>

시민들 헌화·봉축 참여... 전주 역사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호남권 대표 관광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선왕조를 장군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 봉안행렬과 조선왕조실록을 말리는 포쇄가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17일 조선왕조실록이 총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습기를 제거하고 책을 말리는 포쇄 재현을 한옥마을 경기전(慶基殿)에 있는 전주사교에서 재현한다"고 5일 밝혔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초주관, 성주 등 3곳의 사교(史敍)와 달리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지켜낸 전주사교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포쇄는 고서인 조선왕조실록이 한지로 만들어져 습기와 책벌레 침범에 약한 데서 비롯됐다.

조선시대에는 장마철을 피해 봄이나 가을의 맑은 날을 택해 바람을 쐬고 햇볕에 말리는 실록 포쇄를 3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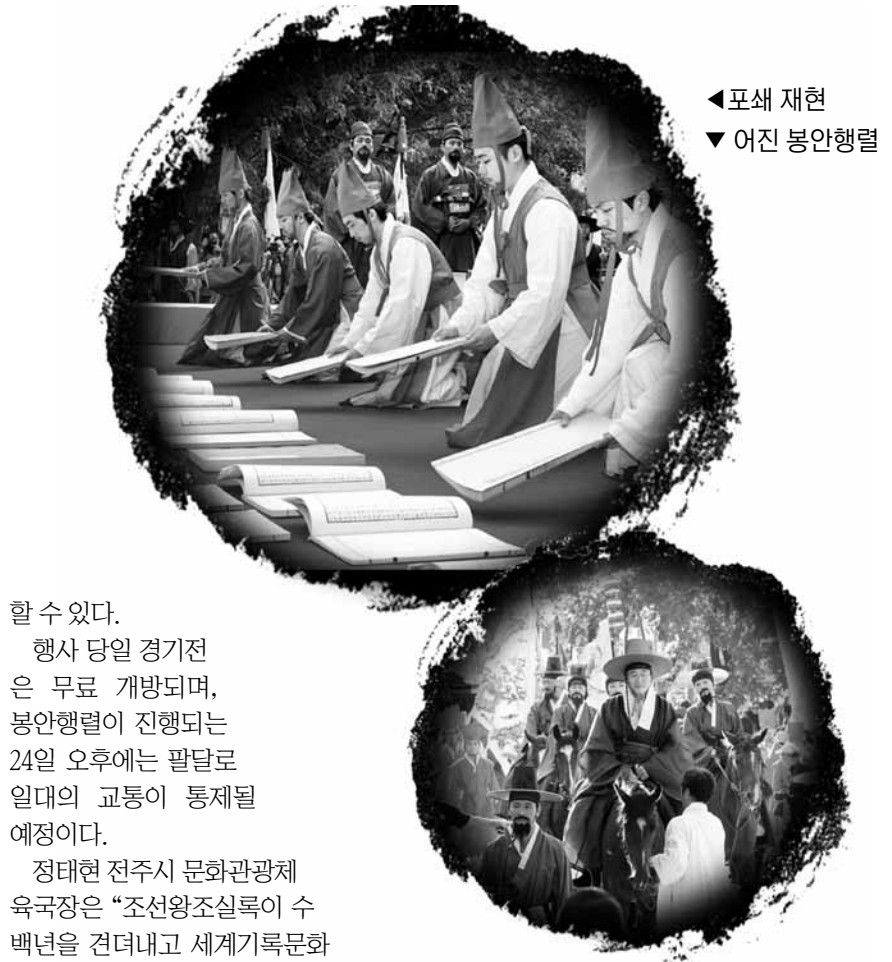
장마가 끝난 처서 즈음에 농부는 곡식

을 말리고, 부녀자는 옷을 말리고, 선비는 책을 말린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이를 담당하는 포쇄별감(포쇄별감)이 춘추관에 설치됐고 포쇄 때마다 일지를 썼을 정도다. 포쇄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됐는데, 왕실에서 사관(史官)을 파견하고 실록포쇄 형지안에는 누가, 몇 명이 참여했는지 등 시행절차를 자세히 기록했다.

24일에는 어진 봉안행렬이 재현된다. 태조의 초상화인 이 어진은 국보 317호로 가로 150cm, 세로 218cm 크기의 비단에 그려져 있다.

처음에는 총 26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주 태조 어진이 유일하다. 봉안행렬은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념식 후 신원(神輦·어진을 넣은 가마)·향정자(香亭子) 등 가마들과 함께 팔달로와 한옥마을을 거쳐 어진을 모시는 경기전까지 이동한다. 경기전에서는 어진을 봉안하는 의식인 봉안례도 선보이며, 일반인들도 헌화·봉축



◀포쇄 재현
▼어진 봉안행렬

할 수 있다. 행사 당일 경기전은 무료 개방되며, 봉안행렬이 진행되는 24일 오후에는 팔달로 일대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정태현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장은 "조선왕조실록이 수백년을 견뎌내고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포쇄와 같은 선조의 지혜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 재현행사를 통해 전주

의 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강진 소공인, 청자산업육성 지원

도자기업체 대상 마케팅·컨설팅 등

8일까지 청자소공인지원센터 신청

강진지역의 청자를 포함한 도자기계 소공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자산업육성 본격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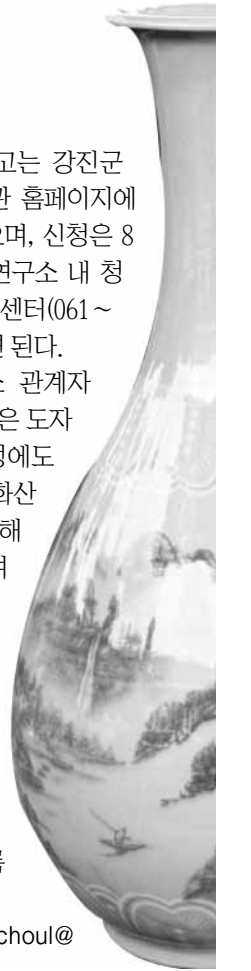
강진문화관광재단 고려청자연구소는 5일 "강진지역에 소재한 도자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화교육, 마케팅,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청자소공인지원센터터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자기업체의 시장창출과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상품기획과정과 마케팅과정의 특화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업체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포장·홍보물 개발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청자 용·복합 상품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연계상품 개발을 통해 청자업체의 판로 개척 및 전통 문화상품의 다양성을 확보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강진군 일대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자기 업체를 대상으로 도자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지원사업의 공고는 강진군 조 소공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자산업육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8일까지 고려청자연구소 내 청자소공인지원센터(061-432-5772)로 하면 된다.

고려청자연구소 관계자는 "강진지역의 많은 도자기 업체는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청자문화산업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마케팅, 컨설팅, 포장제작 지원 등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도자기 제조업체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순창군 장류축제 홍보 순창군 장류캐릭터 인형들이 최근 광주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0회 순창장류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장류축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순창읍 일몰공원 일원에서 열린다.<순창군 제공>

'2015 메밀꽃 문화축제'

9~10일 농업테마공원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문화사업진흥회가 주최하는 '2015 메밀꽃 문화축제'가 오는 9일부터 1박2일간 농업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메밀꽃 축제는 농업경관자원인 메밀을 주제로 농업테마공원에 조성한 경관작물원(2만1600㎡) 일대에서 펼쳐지고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체험마당, 공연마당, 장터마당, 메밀꽃 마당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험마당은 메밀차 시음, 메밀국수 체험, 메밀 전병 만들기 등 무료체험과 사람말 풍등 날리기, 사랑의 열쇠 달기 등 유료 체험으로 구분해 치러진다. 공연마당은 통기타 밴드, 가요연주, 마술쇼, 시민레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장터마당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농부장터와 아나바다 장터 등이 운영된다.

특히 전남 서남권 지역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15 친한 친구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도 개최해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문의는 전남농업박물관(www.jam.go.kr, 061-462-2796~9)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김화자씨 오용섭씨 오현규씨 신지윤씨

남원시, 시민의 장 수상자 4명 확정

남원시는 5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제21회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김화자(여·65)씨, 공익봉사장 신지윤(여·55)씨, 산업근로장 오용섭(55)씨, 애향장 오현규(57)씨 등이다.

시는 오는 23일 열린 제23회 흥부제 기념식장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게 남원 시민의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장을 수상하게 된 김화자씨는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12년 동안 관소리 지도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으며, 관소리 해외 공연(미국, 일본, 중국 등)에도 적극 참여해 관소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공익봉사장을 받는 신지윤씨는 남원시 노암동 농공단지에 현성바이탈을 설립한 뒤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천연 건강 기능 식품 100여종을 개발, 2009년 ~ 2010년 연속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며, 장학금 기탁 등에도 적극적이다.

오용섭(산업근로장)씨는 축사용 바닥재인 콘크리트 슬라트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회사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동아산업 대표로, 불우이웃 돕기 등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원 수지원 출신인 오현규(애향장)씨는 지난 1991년 인천에서 산업용 REEL 제조업체를 창업해 현재 42개국 90여개 업체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군산시에 제2공장을 가동 중이다. 2014년 매출만 213억원에 이르며,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에 힘을 보태는 등 남원 발전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남원=정규식기자 jgs@

정읍시립박물관, 박물관해설사 양성 교육

1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정읍시립박물관이 '박물관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시립박물관은 5일 "전시에 대한 심화학습과 해설 실습을 통해 품격 있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박물관 관람객에게 질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6주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8강좌를 진행한다. 교육 희망자 접수 마감일은 8일이며, 고

등학생 이상 30여명을 모집중이다. 학생과 성인, 남녀 등 선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유병하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이 '박물관의 세계를', 최완규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 '정읍의 백제중방문화에 대한 강좌'를 진행한다.

정읍시립박물관 관계자는 "교육생들의 해설능력을 높이고, 자원봉사 시 박물관 관람 안내 등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물 전양양호 매3억 8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피숍 최적세(신주목/구창)매 5억9천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남구 서동 대지 약 467㎡, 건물 510㎡, 은행 등 3억7500 매도 천만원 • 정성리 리오델리향 무인텔 대지 600㎡, 건물 835㎡, 객실 24개 대충3억 계약조건은 조정할 5억3천 • 화산 동면 관리지역 임야 62608㎡, 요양시설 등 적합, 대충 6억4천 도로안쪽 좋은 교통도 가능 9억 • 광신구 승정동 원로 건물 대지 493㎡, 건물 700㎡, 방 27개 김정 6억이상, 대충 2억2천, 전세 1억9천 매도 5억3천 • 총정로5가 대지 126㎡, 건물 419㎡, 공사지기에 매도 2억5천 • 금남4가 대로변 대지 317㎡, 건물 1235㎡ 은행 4억3천 임대 1억에 월60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5천, 투지 가치 좋음 • 광신구 율계동 APT상가용 지하 945㎡, 시설좋은 목욕탕 김정 9억6백 은행 4억9천 교환도 가능 7억 • 무안군 영운면 옥지에서 650m 떨어진 독립선 별장, 전원주택, 요양시설 등 적합, 공사기 2억6천 김정 5억3천전 매도 3억6천

(주)전국부동산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회사 설립일 : 2003년 8월 26일) 모 집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년· 명예퇴직 하신 분 ▲ 법원 경매에 관심있는 주부 ▲ 자유롭게 출근하면서 법원 경매를 배우실 분 (무료) ▲ 수익성 있는 법원경매 물건을 당사와 함께 공동 투자하여 투자금 비율로 이익금에서 분배를 원하시는 분 ▲ 본인이 직접 법원경매 물건 취득을 원하시는 분

개인원부지 1. 상업지역 108평 2. 사통팔달 교통요지 3. 터미널부지 내 4. 인구증급 예상지 5. 투데이옥션 6. 하프옥션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 물건